

최근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 해지며 이는 환경 이슈를 넘어 기업의 경영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녹색 경영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증가와 국제적인 규제 강화, 투자자들의 환경 적합성 요구,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 선호, 다른 기업 대비 경쟁 우위 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로 기업들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해결해야 것으로 요구를 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녹색 성장을 경영에 적용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녹색경영 Framework]

전략: 기업의 녹색경영은 경영진의 경영철학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녹색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경영진의 의지와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의 축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이와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지에 대한 녹색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설정이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다양한 환경적인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그리고 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를 유발시키는 리스크에 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

리포팅: 기업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재무적 활동에 대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규제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 사항들이 있다. 녹색경영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현황이나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윤리적인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슈어런스: 기업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확인하고 인증 받을지에 대한 문제가 어슈어런스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환경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관련 정보의 생성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의사결정의 적시성과 정확성 확보가 필요하다.

규제대응: 녹색경영 기업들은 스스로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나아가 녹색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즉 기업은 장/단기적인 탄소 배출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의지와 관련 활동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